

그로몹 제안하신 <grruby>

nanim

2015년 5월 16일

요약

이 패키지의 제작에 얽힌 사연事緣은 http://www.ktug.org/xe/index.php?document_srl=204424&mid=KTUG_open_board을 볼 것.

1 간단 설명

1.1 패키지

```
\usepackage[rubystyle=<default|XXruby|ruby|progress|rup>,rubycolor=<color>]{grruby}
```

gr은 이 패키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그로몹 님의 닉네임 첫 두 글자이다. 그로몹께서 제안하신 환경의 이름이 myruby였기 때문에 이를 본따서 <grruby>라고 하였다. 이 패키지가 하는 일은 예를 들어 한글(漢字)와 같이 입력된 소스로부터 한글漢字와 같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원래 이것은 \ruby{한글}{漢字}와 같이 단어마다 마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마저 귀찮으니 자동으로 한자에 한글 음을 달아주게 하자는 발상의 구현. 요컨대 게으름의 소산일……는지도.

루비 스타일 한글/한자가 구현되는 모양을 이 패키지에서는 <rubystyle>이라고 부르는데 기본값은 그로몹께서 제안하신 바 한글이 한자의 왼쪽 위에 작은 글자로 (흐릿하게) 오게 하는 것이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루비 스타일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다.

default 한글漢字. 이것이 디폴트이다. gromob으로 지정하여도 효과가 같다.

XXruby ^{한글}漢字.

ruby ^{한글}漢字.

progress 한글漢字.

rup 漢字한글.

X_YTeX 엔진에서는 XXruby와 ruby를 위해 `\usepackage{ruby}`가 필요하다. 이 패키지를 자동으로 로드하지 않으므로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preamble에 써주어야 한다.

```
\ifXeTeX
\usepackage{ruby}
\renewcommand\rubysep{-1ex}
\renewcommand\rubysize{0.6}
\fi
```

그리고 XXruby는 ruby와 달리 한 글자씩 루비가 붙는다. 다만 LuaTeX-ko라면 ruby 패키지를 로드할 필요도 없고 XXruby와 ruby의 결과가 같다. 즉 LuaTeX에서는 XXruby를 쓸 필요가 없다.

루비 칼리 이 옵션은 default(gromob), progress, rup 세 가지 스타일에 대하여 동작한다. XXruby와 ruby에는 효과가 없다. 이름 그대로 보조 문자의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default 스타일에는 gray, progress와 rup에는 black이 기본값이다.¹⁾

1.2 명령과 환경

- `\grfoo` 명령: 이 명령의 뒤에 오는 한 개의 단어를 정해진 서식으로 식자한다. 괄호 바로 뒤에 중괄호로 잇대어 붙인 부분은 주석이 된다. 주석은 현재 각주(`\footnote`)로 식자되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sidefootnote`로 바꾸는 것은 간단하다.

```
\grfoo 한글(漢字) \grfoo 한글(漢字){주석}
```

한글漢字 한글漢字^{a)}

a) 주석

“한글(漢字)” 입력 형식에서 괄호 안에 오는 텍스트가 스페이스로 분리되면 안 된다. 두 단어 이상을 한글/한자 방식으로 입력하려면 각각을 따로 입력하도록 한다. “한자(漢字) 입력(入力)”은 좋지만 “한자_입력(漢字_入力)”은 잘못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한글 부분과 한자 부분을 그룹으로 묶어주어라. `\grfoo_{한자_입력}({漢字_入力})` 한자 입력漢字 入力.²⁾ 또는 공백을 명시적으로 탈데 기호(~)로 표현한다. `\grfoo_한자~입력(漢字~入力)` 한자 입력漢字 入力.

- `\grruby` 환경: 한 문단 내에 있는 한글(漢字) 입력을 정해진 서식으로 식자한다.

1) 단, 문서 초기값이 default였고 나중에 스타일을 바꾼 경우라면 바뀐 스타일의 초기값이 default의 것(gray)을 따라간다. 이 문서에서 그러하다.

2) 루비 스타일이 XXruby일 경우, 이렇게 묶어주는 것은 오류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XXruby 스타일에서는 글자마다 한글 음을 붙이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XXruby 스타일에서라면 단어 단위로 한자를 괄호 안에 써넣는 것으로 충분하다.

`\begin{grruby}`

한 문단(文段) 내(內)에 있는 한글(漢字) 입력(入力)을
정해진 서식(書式)으로 식자(植字)한다.

`\end{grruby}`

한 문단(文段) 내(內)에 있는 한글(漢字) 입력(入力)을 정해진 서식(書式)으로 식자(植字)한다.

반드시 하나의 문단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단의 일부에 이 환경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둘 이상의 문단은 올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문단 구분(\par)”이 이 환경 내부에 오면 안 된다.

- `<grrubypars>` 환경: 여러 문단에 걸친 텍스트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begin{grrubypars}`

여러 문단(文段)에 걸친 텍스트를 같은 방식(方式)으로 처리(處理)한다.

둘 이상(以上)의 문단(文段)을 포함(包含)하는 것도 문제(問題)없다.

`\end{grrubypars}`

여러 문단(文段)에 걸친 텍스트를 같은 방식(方式)으로 처리(處理)한다.

둘 이상(以上)의 문단(文段)을 포함(包含)하는 것도 문제(問題)없다.

이 환경은 `<grruby>`에 비하여 약간의 제약이 있다. 주의하여 사용하라. (그리고, `<grruby>`와 `<grrubypars>` 환경은 문단 처리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컴파일 속도가 문제라면 `\grfoo`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OffStuff` 명령: 인자로 주어지는 텍스트에 대해서 보통 텍스트로 (즉 조판 형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한다. 수식이나 예외적인 괄호가 올 때 사용한다.

`\begin{grruby}`

인자(因子)로 주어지는 부분(部分)에 대해서는

`\OffStuff{\uline{조판형식(組版形式)을}}` 적용(適用)하지 않는다.

`\OffStuff{\uline{수식(數式)}}`도 $a(b+c)=ab+ac$ 이와 같이

처리(處理)하라.

`\end{grruby}`

인자(因子)로 주어지는 부분(部分)에 대해서는 조판형식(組版形式)을 적용(適用)하지 않는다. 수식(數式)도 $a(b+c)=ab+ac$ 이와 같이 처리(處理)하라.

- `\grrubystyle` 명령: 루비 스타일 바꾸기. 루비 스타일은 패키지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의 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 이 때 사용하는 명령이다. `default`, `XXruby`, `ruby`, `progress`, `rup`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인자로 지정하면 된다. 보기) `\grrubystyle{progress}`.
- `\grrubycolor` 명령: 루비 컬러 바꾸기. 루비 컬러는 패키지 옵션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문서의 중간에 교체할 수 있다. 단 `XXruby`와 `ruby`에는 색상을 적용할 수 없다. 보기) `\grrubycolor{red!60}`. 한글漢字.
- 기타其他. 별행수식別行數式, 도표圖表, 그림, verbatim 따위를 `<grruby>` 환경 안에 넣을 생각은 하지 말자. `section`-류類 명령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section`을 `<grruby>` 안에 넣지 말고 `\section` 안에서 단어별로 `\grfoo`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즉卽, 이 환경環境은 평문단平文段에서 쓰려고 만든 것이다. 이 패키지는 오직 평문단에서만 위의 명령과 환경이 오류없이 동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2 예문例文

부夫 천지자天地者는 만물지역려萬物之逆旅³⁾요 광음자光陰者는 백대지과객百代之過客⁴⁾이라. 이而 부생浮生이 악몽若夢하니 위환爲歡이 기하幾何⁵⁾오? 고인(古人)이 병촉야유(秉燭夜遊)함이 양유이야良有以也⁶⁾라.

수식數式이 든 문장文章을 쓴다면, $(a+b)^2 = a^2 + 2ab + b^2$ 이런 식式으로 함이 가可하리라.
황 양춘소아이연경⁷⁾이요 대괴가아이문장⁸⁾이라, 회도리지방원서천륜지락사
 況陽春召我以煙景⁷⁾이요 大塊假我以文章⁸⁾이라, 會桃李之芳園하여 序天倫之樂事로라.
개위혜련⁹⁾이어늘 오인영가독참강락¹⁰⁾이라.
 군계준수(群季俊秀)하여 皆爲惠連⁹⁾이어늘 吾人詠歌는 獨慙康樂¹⁰⁾이라.

하수河水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戰車 만승萬乘과 전기戰騎 만대萬隊나 전포戰砲 만가萬架와 전고戰鼓 만좌滿座로써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킁킁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蛟螭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3) 여관, 객사, 모텔. 여기서 逆은 廻의 뜻이다.

4) 일촌광음이라도 불가경이니라.

5) 몇 어찌. 어차피 인생 허무한데 안 즐기고 어찌리요?

6) 옛사람도 놀았는데 우리라고 못 놀소냐.

7) 연경은 아지랑이 낀 경치,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

8) ‘대괴’는 대우주, 대자연. ‘가’는 借. 빌려준다.

9) 모두가 혜련이 될 만하다.

10) 慙을 慚으로 쓴 곳도 있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塞外)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榆河)와 조하(潮河)·황화(黃花)·진천(鎭川) 등의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을 거쳐 백하(白河)가 되었다. 나는 어제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下流)였다.

내가 막 요동遼東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뜨거운 별 밑을 가노라니 홀연 큰 강이 앞에 당하였다. 또한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暴雨가 온 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것은 하늘에 묵도默禱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돌아 탕탕히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眩氣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었다. 또한 어느 겨울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는가.

유상미이幽賞未已에 고담전청高談轉清하니 개경연이좌화開瓊筵以坐花¹¹⁾하여 비우상이취월飛羽觴而醉月¹²⁾이로다.

不有佳作불유가작에 何伸雅懷하신아회리오! 如詩不成여시불성¹³⁾이면 罰依金谷酒數별의금곡주수¹⁴⁾하리라.

예문의 소스

\begin{gruby}

부(夫) 천지자(天地者)는 만물지역려(萬物之逆旅){여관, 객사, 모텔.

여기서 逆은 迎의 뜻이다.}요

광음자(光陰者)는 백대지과객(百代之過客){일촌광음이라도 불가경이니라.}이라.

이(而) 부생(浮生)이 약몽(若夢)하니 위환(爲歡)이

기하(幾何){몇 어찌. 어차피 인생 허무한데 안 즐기고 어찌리요?}오?

\OffStuff{고인(古人)이 병촉야유(秉燭夜遊)함이}

양유이야(良有以也){옛사람도 놀았는데 우리라고 못 놀쏘냐.}라.

\end{gruby}

\begin{gruby}

수식(數式)이 든 문장(文章)을 쓴다면,

\OffStuff{ $(a+b)^2=a^2+2ab+b^2$ }

이런 식(式)으로 함이 가(可)하리라.

\end{gruby}

11) 경연은 깔고앉을 자리.

12) 우상은 깃털 모양의 술잔. 그냥 '술잔'을 우미하게 표현한 것이다. 앞 구절의 좌화가 '꽃 아래 앉다(坐於花下)'인 것과 동일하게 취월은 '달 아래 취하다(醉於月下)'이다.

13) 如는 若. 만약.

14) 금곡주수는 별주 석 잔을 말한다.

`\grrubystyle{XXruby}`

`\begin{grrubypars}`

황(況) 양춘소아이연경(陽春召我以煙景){연경은 아지랑이 낀 경치, 아름다운 봄날의 경치}이요
대괴가아이문장(大塊假我以文章){`대괴'는 대우주, 대자연. `가'는 借. 빌려준다.}이라,
회(會) 도리지방원(桃李之芳園)하여 서(序) 천륜지락사(天倫之樂事)로라.

`\OffStuff{군계준수(群季俊秀)하여} 개위혜련(皆爲惠連){모두가 혜련이 될 만하다.}이어늘`
오인영가(吾人詠歌)는 독참강락(獨慙康樂){慙을 慚으로 쓴 곳도 있다.}이라.

`\grrubystyle{default}`

`\jiwon[13]`

`\OffStuff{\jiwon[15]}`

`\grrubystyle{progress}`

`\jiwon[16]`

`\grrubystyle{gromob}`

유상미이(幽賞未已)에 고담전청(高談轉淸)하니
개경연이좌화(開瓊筵以坐花){경연은 깔고앉을 자리.}하여
비우상이취월(飛羽觴而醉月)%
{우상은 깃털 모양의 술잔. 그냥 `술잔'을 우미하게 표현한 것이다.
앞 구절의 좌화가 `꽃 아래 앉다(坐於花下)'인 것과 동일하게
취월은 `달 아래 취하다(醉於月下)'이다.}이로다.

`\grrubystyle{rup}\grrubycolor{cyan!70}`

불유가작(不有佳作)에 하신아회(何伸雅懷)리오!
여시불성(如詩不成){如是 若. 만약.}이면
벌의금곡주수(罰依金谷酒數){금곡주수는 벌주 석 잔을 말한다.}하리라.

`\end{grrubypars}`

3 수정사항

- v0.2: rubycolor 옵션 및 \grrubycolor 명령 추가.